

2 | 3 | 070 착신번호 부여를 위한 인터넷전화 사업자 서비스 품질 인증

인터넷전화의 등장과 가능성

인터넷전화(VoIP, Voice over IP)는 유선 IP망을 통하여 음성전화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1월 새롭기기술이 국내 처음으로 피씨투피씨(PC-to-PC)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무료전화라는 장점을 내세우며 한때 급속히 증가하던 초기의 Soft-Phone 인터넷전화는 헤드셋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함과 음질저하, 통화단절 현상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인터넷전화에 대한 이용자의 불신과 외면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초기의 일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일반전화와 유사한 IP-Phone의 보급, 저렴한 통화료,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의 광대역화, 그리고 인터넷전화 음질을 좌우하는 고품질 코덱 기술의 보급 등으로 인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 인터넷전화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유선전화나 무선전화에 비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별도의 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서비스 역시 저렴한 가격에 제공이 가능하다. 인터넷전화는 갖고

있는 경제성은 향후 통신시장의 재편을 예고할 수도 있는 무궁한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하지만 인터넷전화의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높은 품질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반전화처럼 식별 번호가 필요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와 통신 업계는 인터넷전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전화 역무고시'를 통하여 인터넷전화를 기간 역무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인터넷전화 진입제도에 적합하도록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개정하고 인터넷전화 번호로 070을 부여하기로 했다. 단, 070 번호는 일정 수준 이상의 통화품질을 확보한 업체에만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저하를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터넷전화의 통화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정부에서 마련한 통화품질 기준은 R값이 70 이상이고, 단대단지연이 150ms 이하, 호성공률이 95% 이상을 확보한 사업자에 한해



070 번호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통화 품질로 볼 때 시내전화와 휴대전화의 중간 품질 수준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화 서비스 품질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전화 기간 및 별정 1호 사업자는 반드시 품질평가에 대한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품질 평가 및 인증을 위해 TTA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신청 사업자는 '인터넷번호 부여를 위한 품질평가 신청서'를 TTA에 접수하고, 이들과의 사전 평가를 통해 평가환경을 최종 점검한 후 본 평가를 받게 된다. TTA는 인증위원회 절차에 의거해 측정결과와 품질기준 만족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 발행 여부

를 결정하게 된다. 품질기준에 적합한 수준을 확보한 경우 TTA로부터 '인터넷전화 서비스와 품질평가 인증서'를 받게 된다. TTA는 매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품질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인터넷전화의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새로운 통신시장의 가능성

착발신이 가능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이 마련되고 이에 탄력을 받은 통신사업자들이 TTA의 품질 기준을 통과해 정부로부터 070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2005년 8월부터 국내 처음으로 착발신이 가능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었다.

TTA의 품질 인증절차가 시행되면서 인터넷전화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인터넷 전화는 매년 급속도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전화 시장은 향후 연평균 53%씩 증가를 기록해 2011년에는 규모가 1조 4천억 원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인터넷전화 서비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전화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장비, 소프트웨어 등 인터넷전화 관련 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